

7월의 기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시편 32장 8절>

1.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돌보시는 은혜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오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 겁을 내서 떠는 사람 있습니까? 핸들 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이거 어찌나” 그렇게 하는 운전수가 없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자기 자가용을 끌고 갈 때도 터널을 통해서 갈 때 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터널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으니 반드시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 터널을 간다고 해도 들어갈 때 벌써 마음속에 출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터널이 겁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터널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터널, 큰 터널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게 나오는 길이 없는 인생의 터널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터널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는 것이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란 터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이사야 43장 1절~2절)’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멋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인석, 오주봉, 이태원, 조은숙,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1년 해외성회
미국 LA 성회



①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영권회복 2001 집회'
② 남가주사랑의 교회 장로과 텃밭에서 순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③ LA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오순절대회(Pentecostal World Conference)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지도자들
④ 제19회 세계오순절대회(PWC) 강단에 서있는 조용기 목사

2000년대 초반 미국교회는 두 가지 흐름을 보였다. 하나는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슬람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교회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집회가 2001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LA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영권회복 2001 집회'는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LA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차 세

계오순절대회(PWC)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안과 동시에 이슬람권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던 시간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당시 미국교회의 두 흐름에 직접 참여해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고 미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와 성령운동이 필요하다고 설교했다.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3일간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영권회복 2001 집회' 기간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가 있는 최대 연휴기간이었고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남가주사랑의 교회는 내심 고심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심과 달리 교회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찼고 그 모여드는 인

파에 조용기목사 또한 감동을 받았다. 장로교 토박이들이 성도들에게 총재목사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설교시간을 늘려가며 말씀을 전했다.

◎...LA 힐튼호텔에서 열린 세계오순절대회에 참석한 총재목사는 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고 이 때 모인 세계 오순절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조용기 목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1947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대회는 제 26회 대회대표장을 이영훈목사에게 위임했고 올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특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정말 아담이 있는 곳을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좋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시작을 보면 좋은 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써 좋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빛, 땅, 바다, 열매 맺는 수목, 해와 달, 새들과 어류,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 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각종 실과가 가득한 에덴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에덴동산을 거닐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조근도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2. 죄로 인해 저주 받은 땅

그런데 이처럼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중략)...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중략)...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24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도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영광과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육이 다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들 모습을 발견하고 수치심과 공포가 그 마음에 짙어차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처소를 상실하고 최악의 그늘,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그늘, 죽음과 멸망의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 중생의 은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좋은 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해가 비치자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보혈로써 죄라는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

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실 것에 대한 암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 혼, 육이 다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과 육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께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우리 마음의 생명이요, 우리 육체의 부활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시면 이와 같이 대답한 신앙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내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날마다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추모예배 열려
스승의 영적 유산, 한 마음으로 이어가자



지난 6일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 자리한 조용기 목사님의 묘소에서 DCEM의 주관 아래 추모예배가 드려졌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인도한 추모예배에는 순복음동경교회 교역자와 장로를 포함한 성도들과 DCEM 전 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 모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찬양 <갯세마네 동산에서>와 김성혜 총장님께서 작곡하신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을 함께 부르며 예배에 임했다.
38년간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선교 여정에 동행했던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께 대한 남다른 존경심과 깊은 애정을 표했고, 신앙의 스승이자 아버지로 여기던 조용기 목사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참석자들도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손수 만든 검정 리본을 나누어 다

는 등 조용기 목사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예배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우리의 스승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라고 전하며, “이 축복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제자 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땅에 더 이상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뵈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세계선교에 앞장서 복음전파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9월 16일 일본 신주쿠문화센터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조용기 목사님 추모예배가 드려질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고 목사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nounc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Rev. Jo Yong-gi. It includes a photo of the pastor, the date and time (September 16, 2022, 7 PM), the location (Shinjuku Cultural Center), and the officiant (Pastor Lee Young-hoon). It also mentions that the service will be held in Japanese and that a black ribbon will be distributed.